비아냥 굴레 벗기고 본뜻 되돌려야

언어로 읽는 불교의 풍경

④ 속담 속 '중'은 왜 늘 시험대에 올랐을까
: '안전한 타자' 향한 언어적 투사와 그 이면의 중생심



속담 속 '중'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안의 지독한 중생심을 묵묵히 받아낸 거대한 심리적 배출구였다. 이제 사람들의 결핍과 위선을 대신 짊어진 채 기꺼이 웃음의 과녁이 되어 비아냥을 받아온 이 글자에 본래 이름을 돌려주어야 할 때다. 이미지 출처=Gemini 생성 이미지

우리말 속담에서 '중'은 가장 바쁜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린다", "중노릇도 못한다", "중을 잡아먹었나" 등 여러 표현에 수시로 등장한다. 그런데 '중'이 들어간 속담 치고 좋은 뜻을 가진 표현은 찾기가 어렵다. 이 세계에서 '중'은 무능하거나 쓸모없는 존재의 상징이자 조롱의 대상이며, 세속적 욕망을 버리지 못한 가장 못난 인간 군상을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인물로 자리 잡고 있다.

왜 유독 '중'은 이토록 가혹하게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했을까. 단순히 불교가 억압받던 시대의 편견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중들이 자기 욕망을 '중'에게 덮어씌우고 그를 비웃으며 위안을 찾았던 것은 아닌지, 그 조롱의 행간에 숨은 심리적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 한다.

'무리'→'개인', 의미 축소가 부른 조롱의 틈새

'중'의 어원은 그 뿌리가 어디인지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투명하다. 다만 여러 학설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것은 불교의 승가 '무리'를 뜻하는 한자 '중(衆)'에서 기원했다는 설이다. 즉, '중'은 여러 수행자가 화합하여 이룬 공동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한국어의 역사 속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한자어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희박해지면서, 현대 국어사전에는 아예 한자 기원에 대한 정보 없이 오로지 고유어로만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단어의 뿌리가 잊힌 사건이 아니다. 거대한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던 '집단'의 의미는 희미해지고, 삭발한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그 범위가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공동체라는 보호막이 제거된 자리에 조롱과 비하의 뉘앙스가 침투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조선의 억불 정책은 이러한 언어적 격하를 가속화했고, '승(僧)'은 '중'으로, 다시 '중놈'으로 낮잡아 불리며 풍자라는 도마 위에서 요리하기 좋은 재료로 전락했다.

탈춤과 속담, '안전한 타자' 향한 거침없는 웃음

속담 속 '중'의 이미지는 탈춤이나 판소리 속 인물들과 겹쳐지면서 더 또렷한 얼굴을 갖게 된다. 봉산탈춤이나 산대놀이에 등장하는 '노장'과 '목중'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다. 특히 노장은 수행을 오래 한 고승으로 등장하지만, 유혹 앞에서는 너무도 쉽게 무너진다. 관객이 기다리는 건 그의 고결함이 아니라, 그가 무너지는 순간이다. 바로 그 장면에서 웃음이 터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탈춤은 양반도, 중도 모두 풍자의 대상으로 삼지만, 다루는 방식은 꽤 다르다는 사실이다. 양반 역시 허세 많고 무능한 존재로 자주 비웃음거리가 되지만, 그 조롱에는 어딘가 선을 넘지 않는 느낌이 있다. 아무리 망가져 보여도 양반은 여전히 현실의 권력을 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을 비웃는 데는 늘 불편한 긴장이 뒤따랐다.

반면 중은 달랐다. 세속의 권력도, 집안의 배경도 스스로 끊고 나온 존재였다. 쉽게 말해,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만만한 대상인 셈이다. 그래서 노장이 욕망에 휘둘리며 망가지는 모습은 훨씬 더 거침없이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때로는 몸짓과 상황을 과장해 가며 웃음의 수위를 직설적이고 파격적으로 끌어올린다.

관객들은 아무런 위협 없이 깔깔거리며 그 모습을 즐겼다. 이런 분위기는 속담에도 그대로 남아 있다. 양반을 비꼬는 말보다 중을 향한 속담이 훨씬 노골적이고 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단 의미 퇴색되자 조롱·비하 가속화
보호막 없어 노골적 풍자의 대상 전락
수행 흉보기 통해 욕망 정당화 수단 돼
'무능 결정체' 박제해 결점 은폐 도구로
세속 허물 받아낸 포용의 또 다른 얼굴

금기 가진 자만 줄 수 있는 역설적 카타르시스

역사적 배경에 더해 '중'을 가혹한 시험대의 주인공으로 만든 결정적 이유는 그가 '금기를 스스로 짊어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중이 지닌 금기는 역설적이게도 대중의 조롱에 최적화된 조건을 제공했다. 대중은 수행자가 설정한 도덕적 문턱을 그가 얼마나 위태롭게 넘나드는지 감시하며 그 틈새에서 짜릿한 즐거움을 찾았다.



봉산탈춤 중 노장춤 장면. 사진=국가유산포털

첫 번째 시험대는 외형이다. 불교에서 삭발은 번뇌를 끊겠다는 숭고한 서원이지만, 유교 질서 안에서는 '불효'의 극치로 해석되는 파격이었다. 머리카락 하나 자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시대에 매끄러운 대머리는 그 자체로 구경거리였다. "중 나라에 가서 빗 찾는다"와 "중의 상투" 같은 속담은 이질적인 외형에 대한 호기심과 거부감을 동시에 보여준다. 머리카락을 포기한 순간 그는 어디서든 눈에 띄는 타자가 되었고, 대중은 그를 보며 정말 세속의 번뇌를 끊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 들었다.

두 번째 시험대는 본능적인 욕망이다.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빈대가 안 남는다"거나 "중이 젓갈 맛을 알면 불상을 팔아 치운다"는 속담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일반인이 욕망을 탐하는 것은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지만, 금욕을 선언한 수행자가 금기를 깨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구경거리가 된다. "중이 염불은 안 하고 잿밥만 밝힌다"는 표현 역시 본질보다 부차적 이익에 집착하는 인간의 탐욕을 '중'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조롱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일종의 자기합리화에 가깝다. 수행자조차 결국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속물적 본능의 힘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러면서 '저런 수행자조차 무너지는데 나 같은 범인이 욕망을 좇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는 안도감을 경험했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중을 흉보는 동안, 자기 욕망을 조금은 정당화해 줄 핑계를 얻었던 셈이다.

실패의 바닥선이 된 무능의 아이콘

이러한 뒤탈 없는 만만함은 급기야 대상을 '무능함'의 틀 속에 가두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속담 속에서 중은 흔히 사회적 능력의 최저 기준선, 혹은 의존적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은 가장 기본적인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을 대표하며, 결정적으로 "중노릇도 못할 놈"이라는 표현은 중이라는 존재를 사회적 신분 사다리의 마지막 칸이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조차 감당 못 하는 무능의 결정체로 낙인찍는다.

이 지점에서 대중의 비겁한 위안이 작동한다. 관리의 타락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지만, 생산과 권력 바깥에 놓인 중의 무능은 공동체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중은 '아무리 비웃어도 공동체의 질서가 위태로워지지 않는 가장 안전한 실패의 바닥선'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렇게 사회는 집단적인 자기 성찰 대신 모든 무능의 서사를 '중'에게 몰아주었다. 그를 무능의 아이콘으로 박제함으로써 스스로의 결점은 은폐하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다'라는 비루한 우월감을 챙기려 했던 것이다.

'중(衆)'의 복권: 조롱의 거울을 닦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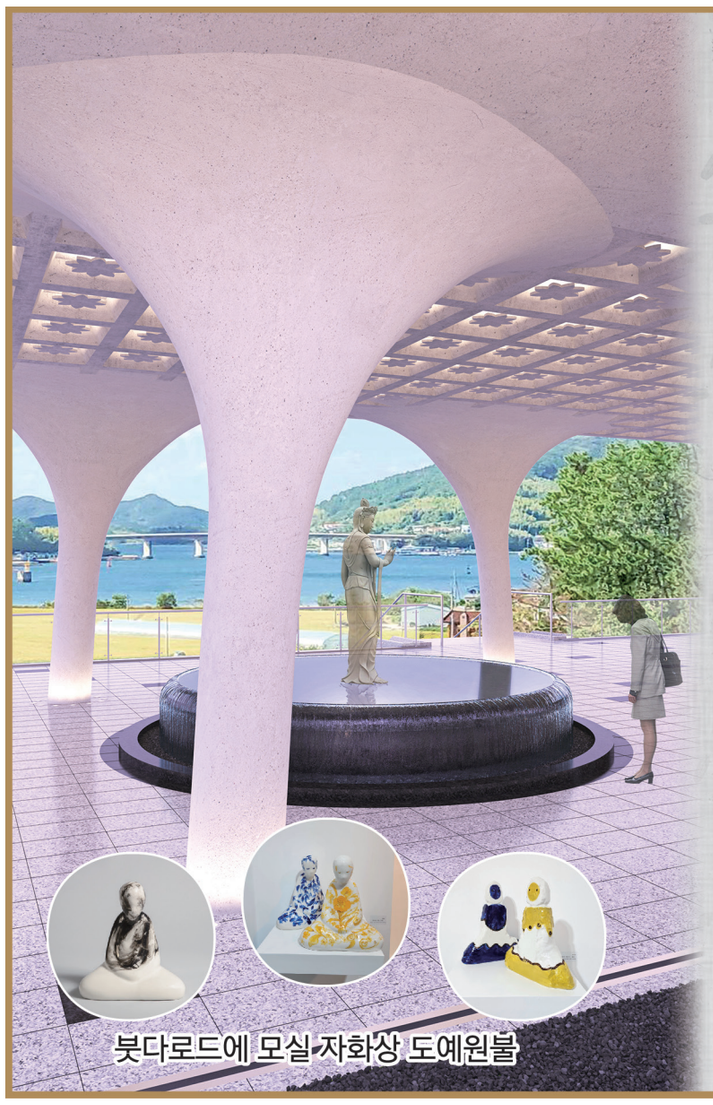
결국 속담 속 '중'은 수백 년 동안 우리 안의 지독한 중생심을 묵묵히 받아낸 거대한 심리적 배출구였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의 시험대에 올려놓고 자신의 위선과 결핍을 덜어냈으며, '중'은 기꺼이 웃음의 과녁이 되어 세속의 비루함을 대신 짊어져 왔다. 조롱이라는 형식을 빌려 드러난 이 풍경은,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속의 허물을 받아낸 불교적 포용의 또 다른 얼굴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리 넓은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의 못난 중생심을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수백 년이나 이런 조롱을 견뎌왔다면 이제는 정말 충분하지 않은가.

이제 그에게 씌워진 비아냥의 굴레를 벗기고, 본래의 이름을 오롯이 돌려주어야 할 때다. 조롱의 대상이 된 초라한 한 개인이 아니라, 서로를 덮어주며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공동체라는 그 본래의 의미 말이다. 그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는 일은 오랫동안 시험대 위에서 고초를 겪어온 이 단어를 따뜻하게 위로하는 길이자, 동시에 타인을 깎아내리며 비겁한 위안을 얻던 우리 안의 '중생심(衆生心)의 언어'를 내려놓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김지오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조교수



거북이가 알을 낳고 봉황이 내려앉는 명당

자손대대로 공덕이 이어지는 창건불사에 동참하십시오

거북이 같은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천상에 태어나는 큰 공덕이 됩니다.

한려수도의 심장 거제도 제석산이 감싸고 천연와불이 수호하는
대붕안착형·영구은란형 터로 세계적인 불교 성지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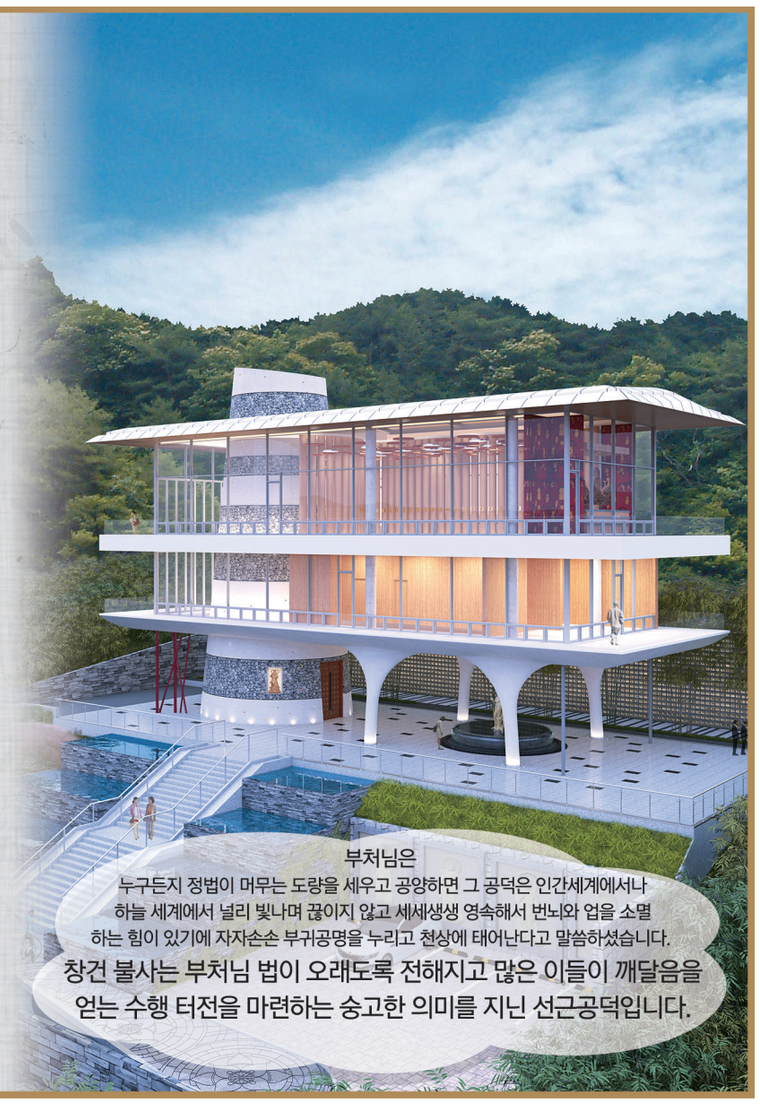
동참방법

원불 108만원, 관음보살상1080만원으로 불자님의 원력과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납입 하시면 됩니다. (원불:삼천불, 관음보살상:33불)
계좌 : 부산은행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 오오! 일사천리

불사개요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이사장 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영산대학교 겸임교수)인 평천 범혜스님이 세계적인 불교 성지 탄생을 위해 여러 불자님의 원력을 모아 창건하는 신개념 사찰입니다.
세계적 건축 명장의 초현대적 감성과 불교 사상·우주관을 융합하여 남섬부주에서 9산8해의 중심 수미산 정상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또한, 33수행계단을 오르며 번뇌 망상을 비우고 또 비워서 비로소 참나를 찾아 도자기 원불에 자신만의 자화상이나 원력을 그려 넣어 도예작품으로 완성하여 붓다로드에 모십니다.
부처님의 상징인 흰코끼리 건축물, 수미산 형상의 코끼리 코기둥, 제석천 위 허공에 모신 실물 불상, 바다 위 허공에 모신 실물 33관음보살상, 종이 소재의 법당기둥, 구품연지, 금강저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찰건축 작품입니다.

더뷰비전센터 평천 범혜 합장
(경남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525-3)



부처님은
누구든지 정법이 머무는 도량을 세우고 공양하면 그 공덕은 인간세계에서나
하늘 세계에서 널리 빛나며 끊이지 않고 세세생생 영속해서 번뇌와 업을 소멸
하는 힘이 있기에 자자손손 부귀공명을 누리고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건 불사는 부처님 법이 오래도록 전해지고 많은 이들이 깨달음을
얻는 수행 터전을 마련하는 숭고한 의미를 지닌 선근공덕입니다.